

“尹 정권 심판” vs “1당 독주 방지” vs “대안 정당 필요”

총선 전북 유권자들 정당 투표 ‘각양각색’

민주당 선택 유권자들 “尹 정권 심판”

국힘 선택 유권자들 “1당 독주 막아야”

새미래 선택 유권자들 “대안 정당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내 유권자들이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투표장에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1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국회의원 선거 전북지역의 투표율은 사전투표를 38.46%를 더해 67.4%를 기록했다.

오후 8시 30분 현재, 개표 상황은 도내 10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어, 당선이 유력한 상태다.

출구조사 결과 전주갑 김운덕 78.1%, 전주를 이성운 63.1%, 전주병 정동영 79.1%, 군산·김제·부안 갑 신영대 81.2%, 군산·김제·부안 을 이원택 78.4%, 익산갑 이춘석 73.6%, 익산을 한병도 83.3%, 정읍·고창 윤준병 85.5%,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82.4%, 완주·진안·무주 77.6%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내 많은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택한 이유로,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폭주에 대한 심판, 새만금 잠버터 파행과 새만금 예산의 삭감에 대한 분노, 경기 침체, 정권 교체와 지역 균형발전을 꼽았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요식업

을 하고 있는 한 40대 남성(48)은 “이번 선거는 명백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가장 합당한 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주저없이 투표장에 나와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거주하는 한 남성 유권자(56)도 “상식이 무너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걸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민주당 후보에 한 표를 행사했다”고 했다.

또한 “제3지대에 표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라며 “제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군과 새로운미래 후보군은 민주당 후보에 큰 차이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민주당 1당 독주를 막는 것은 물론, 적어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당에 표를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전주시 삼천동에 거주하는 한 60대 남성(68)은 “민주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표를 줬다고 했다.

남원시 왕정동에 거주하는 70대 남성(72)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 표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제3지대 정당인 새로운미래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방탄 정치 심판, 낙후된 지역 발전, 대안 정당의 필요성, 경기 침체, 정권 교체와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 등을 이유로 뽑았다. 이들은 당선 가능성과 별개로, 길게 보고 가겠다는 다짐으로 이들에 한 표를 행사했다고 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33)은 “거대 양당의 방탄 정치에 신물이 난다”며 “이번엔 대안 정당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새로운미래 후보에 표를 줬다”고 말했다.

또한, “새미래는 신당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며 “이제 시작이다. 내년 재보궐, 2년 뒤 지방선거에서도 새로운미래에 표를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익산시 모현동에 거주하는 한 청년(26)은 “거대 양당은 청년들의 삶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새로운미래엔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공약들이 마음에 든다. 현재 우리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정당은 새로운미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길게 본다는 다짐으로 투표에 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조국 '주먹 불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도내 유권자들, 투표소에서 한 표 행사

서신동 서문초에 마련된 제5투표소 등 유권자 발길 이어져
효자동 한신희플러스 아파트 주차장 등 이색투표소 '눈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10일,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도내 많은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관련사진 16면〉 이날 오후 1시 19분경, 전주 서신동 서문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5투표소, 이곳 투표소 책임자인 선거 관리관에 따르면, 현재 이곳 개표소는 참관인 7명이고 모두 정당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자원봉사자는 없었다.

선거 관리관은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후의 개표소 분위기는 이미 지난 5~6일에 사전투표를 해서인지 다소 한가로운 모습을 보였다. 투표장에서 투표를 마친 50대 여성 유권자는 “당파를 떠나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유권자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말했다. 80대 유권자는 “국민으로서 선거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전주남중학교에 마련된 평화1동 제2 투표소에서도 가족과 함께 온 유권자부터, 애완견과 함께 온 유권자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이들이 투표장을 찾았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왔지만 투표장소가 달라 인근의 다른 투표소로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로 여럿 보였다. 이색투표소도 눈길을 끌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에 위치한 한신희플러스 아파트 101동 주차장, 주차장 한켠에 하얀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입구와 출구가 나뉘었고 내부에는 투표함이 설치됐다. 이곳 투표소는 단 하루의 투표를 위해 임시로 설치됐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팔복남양 아파트 내 사랑나무어린이집에도 투표장이 마련됐다. 투표소 내부는 평소 아이들이 즐기고 놀던 작은 미끄럼틀 등이 차지하던 공간에는 참관인들과 기표소가 들어섰다. 사실 배드민턴장에 마련된 투표소도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위치한 인후3동 제6투표소, 평소 이 곳은 배드민턴 회원들이 즐겨찾는 시설 배드민턴 체육관이었다.

하지만 투표를 위해 이날은 고무코트 위 네트를 넘나드는 셔틀북 대신 기표소와 투표참관인, 선거관리원들로 채워졌다. 한편, 총선과 관련해 전북지역의 투표율은 67.4%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를 38.46%를 더한 수치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유권자 수는 총 152만 여명으로, 지난 5~6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전북은 전국 평균(31.28%)을 초과한 38.46%(59만여명)의 투표율을 보였다. /특별취재반

도내 투표소 이모저모 투표용지 찢고, 빈 투표용지에 불법 촬영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일 진행된 가운데 전북지역 투표소에서는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이색투표소와 섬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는 등 다양한 일이 발생했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는 오전 10시 50분께 A(52)씨가 자녀 B(22·여)씨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B씨의 투표용지를 본 A씨는 투표용지에 후보를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었다.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 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오전 10시35분께에는 군산시 서수면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소 내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1매가 발견됐다. 누군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고 놓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선관위는 투표 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전주에서는 C(40대)씨가 오전 8시26분께 덕진동의 한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하는 등 자신의 투표 과정을 인터넷 방송해 적발됐다.

○...군산시 명도면에 거주 중인 주민 6명은 투표를 하기 위해 배를 탔다. 명도에는 투표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옥도면에 위치한 방축도교육회관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옥도면으로 건너가 무사히 투표를 마치고 귀가했다.

총선 전국 투표율 67% 잠정 집계... 32년 만에 최고치

10일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최종 투표율이 67%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체 선거인 4428만111명 가운데 2966만1961명(잠정)이 투표, 총 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66.2%에 견줘 0.8%포인트

높았다. 다만 '마의 70%' 달성은 실패했다. 시·도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70.2%)이고, 이어 서울(69.3%), 전남(69.0%), 광주(68.2%), 경남(67.6%), 부산(67.5%), 전북(67.4%) 순이다. 특히 서울과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최대 격전지로 꼽힌 동작구(류삼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국민의힘 동작을 후보)의 경우 투표율이 72.2%로 가장 높았다.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인천 계양구(이재명 민주당·원희룡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는 68.7%로 전체 평균 투표율(잠정)을 웃돌았다. /뉴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